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6:25-30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생각하는 영성은 깊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6월 2일	6월 9일
윤원신	장헬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28) 산 위의 가르침(2)

본문 : 눅6:20-26

성경에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선포, 거룩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또한 산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다른 신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 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곧 우상입니다. 언제나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로 하나님의 것들 마저 나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구약의 산, 율법의 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화하고 종교화한 그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금송아지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오류로 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류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룩한 책이기에 모세의 산을 예수의 산으로 바꾸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받은 말씀을 산 아래 내려오셔서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팔복과는 다르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에 무게를 둔 메시지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팔복이나 누가복음의 4복과 4화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설의 복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는 이제부터 세상의 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이 세상에서는 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가 세상에서는 복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시선으로 교회를 보면 숫자 적 부흥이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 없는 교회는 실패요, 또는 저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철저히 세상적 시선 입을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 받는 교회였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 보시는 마음의 중심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 결정 기준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가라는 기준일 것입니다.